ISSN 1225-4169

녹색환경을 창조하는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

조경수

2021. 10+11+12 Vol.173

『컨테이너 조경수 수출전략 특집호』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
Korea Landscaping Tree Association

동화기업 · 한솔홈데코 협력업체

대 우 임 산

조경 / 제재소 / 산림개발

소나무, 해송(농장50만평) 전국최대보유

대표 구본찬 **전무** 구본문

충남 당진시 서해로 6276, 2층 (시곡동) **사무소** 041-355-6363

휴대폰 대표 010-5409-9964 / 전무 010-5317-3115

팩스 041-356-6802 **이메일** hara7575@naver.com

PLAVIN (주)국일화학의 New-Brand Name "플라빙"

산(山)에서 미래(未來)를

입찰이 필요없는 - 컨테이너재배용기

-조경포트 4종 국유특허 전용실시권 획득-

컨테이너(조경포트), 시설양묘재배용기등
플라스틱 성형 전문생산 업체

◈ 4구(분리형) (4.58ℓ)
. 크기 : Φ200 x H200
. 용도 : 대형묘목/소형 조경수 생산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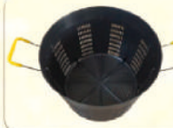
◈ 시설양묘용기 - 특6구
. 크기 : 863㎖ (Φ109))
/ 510x340x160
. 용도 : 진달래, 산수국 등

◈ 시설양묘용기 6구
. 크기 : 1.35㎖(Φ120) /420x280x170
. 용도 : 중,대형 묘목생산용

◈ 화분받침대(9구)
. 크기 : 382 x 382 x 79
. 용도 : 원형화분110 / 사각화분110
공용 화분받침대

◈ 삽목상자100 / 160
. 크기 : 520 x 370 x 100
/ 520 x 370 x160
. 용도 : 파종상자, 묘목삽목 생산용

◈ 화분7 / 화분17 / 화분25
. 크기 : Φ257 x H210 /Φ300 x H250
/Φ385 x H305
. 용도 : 소,중형 조경수 생산용



◈ 조경포트 20형/45형/65형/95형
. 크기 : Φ335xH305 / Φ470xH345
/ Φ520xH375 / Φ583xH420
. 용도 : 중,대형 조경수 생산용

▣ 시설양묘용기 및 부속 자재

품 목	크 기 (가로x세로x높이)	직경/셀용적 (mm/ℓ)	품 목	크 기 (가로x세로x높이)	직경/셀용적 (mm/ℓ)	비 고
4구(일체형)	390x390x390	Φ130/1.560	88구	440x320x65	Φ36/0.043	
4구(분리형)	400x400x80	Φ200/4.580	삽목상자100	520x370x100	파종상자	
6구	420x280x170	Φ120/1.350	삽목상자160	520x370x160		
특 6 구	510x340x160	Φ109/0.863	삽목포트176	535x370x60	30*30/0.036	
12구	450x340x170	Φ102/1.050	원형심경포트300	Φ194xH300	Φ167/5.0	
15구(일체형)	425x255x162	Φ75/0.510	사각심경포트400	140x140x400	140*140/5.6	
20구150	400x320x140	Φ68/0.390	조경포트 20형	Φ335xΦ250x300	19.0 ℓ	전용실시권
20구140	375x300x140	Φ65/0.310	조경포트 45형	Φ470xΦ400x345	46.0 ℓ	전용실시권
24구(일체형)	420x280x140	Φ64/0.310	조경포트 65형	Φ520xΦ450x375	65.0 ℓ	전용실시권
28구	450x260x140	Φ60/0.305	조경포트 95형	Φ589xΦ507x427	19.0 ℓ	전용실시권
35구	440x300x160	Φ50/0.230	용기받침대(P/P)	1,200x1,000x205	파렛트형 받침대	
40구	443x280x140	50*50/0.270	포트받침대	1.0x0.6(조립식)	조립식받침대	

KI (주) 국일화학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오룡동길 19 (부동리153-1)

TEL : 044) 867-9631~2 FAX : 044) 867-2231

http:www.kukilchem.co.kr / E-mail : kukilchem@hanmail.net

업계 최초

카카오쇼핑하기 판매 개시!

ECR18E 볼보 소형 굴착기

ECR18E 농협 정부지원 안내

지원 대상(자격)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지원 금융기관 : 지역별 농협 방문, 세부 신청 가능
지원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2.0%(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융자지원 한도액 : 2,000만원
※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가까운 농협은행을 통해 직접 신청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매절차

1 구매하기 — 카카오톡 스토어 예약금 결제 ₩ 300,000

2 볼보건설기계에서 직접 방문 상담 — · 방문 일자 예약 · 방문시 제품 상세 설명 · 구입시 금융할부서비스 지원 안내 ▶ 구매 계약 완료 / 잔여금 입금
제품가(부가세 별도): ₩ 25,000,000
계약금: ₩ 300,000
본계약시 잔액 : ₩ 24,700,000

3 직접 제품 배송 — 볼보건설기계 직접 책임 배송 ▶ 인도 장비 확인 — 예약 계약 내용 확인

4 구매 완료 — 장비 인도시 현장에서 직접 카카오톡 스토어 구매 확인 ▶ 특별 사은품 볼보 아이덴티티 키트 추가 증정

–Volvo Identity Kit

※제품구입은 볼보건설기계 영업지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지사 안내 1644–1172)

KakaoTalk 채널
▸ http://pf.kakao.com/_xhQaGC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Building Tomorrow

Contents

2021. 10+11+12 Vol.173

녹색환경을 창조하는 조경수

해미읍성(서산) 은행나무

06	협회소식		
12	산림시책소개		
16	조경수 특집	조경수 수출의 첫걸음은 '잘 키운 조경수'	• 곽은경
22	조경수 설계시공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의 기본	• 김종진
34	새로운 조경수	꽃과 향기가 좋은 산분꽃나무속	• 김종근
46	회원사탐방	「유한회사 세아농원 · 봄 해 원」	• 박정기
56	조경수 기고	꿈꾸는 초등학교 소나무 숲	• 이용직
62	역사 속 나무 이야기	최치원은 왜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었을까?	• 신현배
66	회원사		

발행인 겸 편집인 김규열
발행처 (사)한국조경수협회
등록번호 마1743
등록일 1992년1월 21일
발행일 2021년 12월 20일
(통권 제173호 10+11+12호)
발행 및 편집주간 류주열
제작실무 박소현, 오경권, 김슬기
디자인 및 제작 한국학술정보(주)

녹색환경을 창조하는
한국조경수협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84, 203호(봉명동, 레자미(Ⅲ) 오피스텔)
TEL (042)822-5793~4 FAX (042)822-5797
E-mail klta@klta.or.kr http://www.klta.or.kr

본지에 게재된 내용과 사진은 발행자인 (사)한국조경수협회의 동의 없이는 복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사)한국조경수협회

조경수 생산 및 녹화자재와 컨테이너 재배용기 공급 안내 공지

- (사)한국조경수협회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조경수 생산 및 녹화 자재와 컨테이너 재배용기, 상토를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사에게 공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조경자재 품목별 단가가 표시된 주문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lta.or.kr) 공지사항 란에 공지되어 있으니 주문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주문서는 소속지회를 경유하여 보내주셔도 되고, 회원사에서 직접 협회사무국 (fax : 042-822-5797, e-mail : klta@klta.or.kr) 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 주요품목 : 녹화마대, 녹화끝, 고무바, 반생, 조경용 고형복합비료, 코아네트, 황마씨네트, 씨거적, 컨테이너 재배용기, 컨테이너 전용상토 등

협회 회원께서는 게시된 주문서를 작성하시어 구매 신청하시면
쇼핑몰상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한국조경수협회

조경수조성관리사 기출·예상문제집 발간

조경수조성관리사 자격검정 필기시험 준비생들의 지침서로
「조경수조성관리연구회」에서 기출 · 예상문제집을 발간하고 조경수조성관리사에
도전하시는 수험생들의 필독서로 추천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구입가 : 35,000원
- 입금처 : (국민) 420801-01-204019 한국조경수협회
  입금 후 연락 주시면 우편 배송해드립니다.
- 문 의 : (사)한국조경수협회
- T E L : 042-822-5793~4 / F A X : 042-822-5797

NEWS 박정기 회원 문화재청장상 수상

01. 일 시 2021년 10월 8일 (금) 13:00

02. 장 소 경북 문경시

03. 내 용 천연기념물자원 발굴 유공자 표창

NEWS 제13회 국가공인 민간자격 조경수조성관리사 자격검정 회의

01. 일 시 2021년 10월 14일 (목) 10:00

02. 장 소 협회 회의실

03. 참석자 자격검정출제 선정 · 검토 위원

04. 내 용 제13회 '조경수조성관리사' 필기 및 실무시험 문제 검토 및 선정

NEWS 『제2회 임업인의 날』유명수 고문 대통령상 표창 수상

01. 일 시 2021년 11월 1일 (월) 14:00~15:20

02. 장 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대연회장

03. 내 용 산림사업유공자 정부포상 (대통령상)

NEWS 『제20회 산의 날』조기철 이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표창

01. 일 시 2021년 11월 2일 (화) 10:30

02. 장 소 KT대전인재개발원

03. 내 용 산림사업유공자 표창

NEWS

2021년 국비지원 컨테이너 조경수 재배교육

01. 일　시 2021년 11월 2일 (화) ~ 3일 (수) / 1박 2일

02. 장　소 KT대전인재개발원(대전), 금송농장(세종), 수복나무시장(세종)

03. 참석자 컨테이너 조경수 재배 교육희망 회원사

KT대전인재개발원(대전)

KT대전인재개발원(대전)

수복나무시장(세종)

임업·산림 공익직불법

(요약정리)

임업 ·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임업산림 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임업공익직불제가 도입된다. 임업공익직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며, 임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원에 달하지만, 20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700만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그간 임업인총연합회가 주축이되어 많은 역할을 해온 성과로 「임업 · 산림 공익직불법」이 제정 공포하게 되었음을 밝혀둔다. (편집자)

◉ 제정이유

산림은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 · 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다양한 공익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임업은 이러한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고 있음.

농업과 수산업 분야는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이미 시행하여 농업 · 농촌 및 수산업 ·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장려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임업 분야는 이러한 공익 가치의 창출에도 불구하고 공익직접지불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업 · 산림의 공익 기능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임업 · 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임업 · 산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① 임업 · 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2022. 10. 1. 시행)

- 「임업 ·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에게 공익의무 준수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
- (유형)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직불금

구 분		면 적	비 고
① 임산물 생산업	소규모임가 직불금	0.1~0.5ha	가구당 120만원, 법인제외
	면적 직불금	0.1~30ha	지급상한은 가구당 30ha, 법인 50ha
② 육림업 직불금		3~30ha	지급상한은 가구당 30ha, 법인 50ha

- 대상산지

- '19. 4. 1.~ '22. 9. 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지급 제외산지) 국·공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등

* 경영체 등록 :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직불금 지급신청 : 읍·면·동사무소

- 대상자 요건

-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 직전년도 영농종사일수 90일 이상 종사,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등

- (지급제외 대상자) 지급대상 산지 일부를 양수·임차·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등

- 등록대상 기준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잣 제외),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 밖의 임산물 : 1천㎡이상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 : 300㎡이상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 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 공통 의무사항 준수

- 관련 교육 이수, 친환경 임업, 산림보호 활동, 영림기록 작성보관 등

* 향후 계획 :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법령 및 세부사업시행지침 등 마련 중

국회 농해수위 임업직불금 통과기념 (2021. 10. 5)

임업직불금 간담회 (산림청, 임업인 총연합회)

조경수 수출의 첫걸음은 '잘 키운 조경수'

곽은경
동행코칭컨설팅 대표

2018년 봄, 중소기업대학원 '리더십 코칭*' 수업시간에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의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Fully functioning Person)'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다. 나는 그동안 찾아 헤맨 답을 찾은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다.

코칭의 정의(한국코치협회) :

개인과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최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수평적 파트너십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갖는 구체적인 특징 5가지'는

첫째, 경험에 대한 개방성(다양한 감정, 새로운 관계, 새로운 체험에 개방적)

둘째, 실존적 삶(매 순간 현재의 삶에 충실)

셋째, 자신에 대한 신뢰(자신의 경험과 자기 신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넷째, 창조성(자신이 속한 문화에 구속되거나 수동적으로 동조하지 않음)

다섯째, 자유로움(타인의 시선, 제약 또는 억압 없는 선택의 자유)이다.

나 자신에게 그동안 충분히 기능하면서 살아왔는지 하나씩 질문을 해보았지만 100점 만점으로 생각해 보아 70점 이상 점수를 줄 수가 없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늘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지만 상황 때문이라는 핑계를 댔고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살지 못했던 것 같다. 코칭 공부를 계속하며 인생 2막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된 나는 2020년 가을, 남들보다 좀 이른 시기에 산림청 공무원 생활의 막을 내렸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코칭'을 시작하여 현재는 업체 대표 및 개인 대상으로 코칭을 하고 기관 · 단체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의 인연으로 인해 지난 11월 2일 조경수협회에서 주관한 '컨테이너 조경수 재배 교육'과정에서 '행복한 나무꾼의 조경수 마케팅'이라는 제목으로 코칭스타일 강의를 했다. '나

무꾼'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나무를 베는 사람'이지만,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꾼'이라고 하므로 조경수 업을 하시는 분들을 존중하는 의미로 '나무꾼'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었다.

일방적인 전달식 강의가 아니라 상호 소통을 통해 어떻게 하면 나무꾼으로서 더욱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지 그리고 어떻게 조경수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시도록 하는 시간이었다.

잘 알려진 '몰입(Flow)'의 저자인 긍정심리학자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인생은 어떤 식으로 살라고 누가 정해 놓은 규칙이 있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내는 일이다.'라고 말했고,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만큼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날 첫 번째 시간에 '나'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나와 타인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삶의 행복도를 높이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행복심리학으로 불리는 긍정심리학에서는 행복의 3요소인 '안락함', '자기실현', '의미'가 조화롭게 선 순환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한다. 강의 중에 느낀 것은 조경수 일을 하시는 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가 어느 직업군과 비교해도 높다는 것이었다. 자연 속에서 나무와 함께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시고, 당신들이 가꾼 나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는 말씀들을 하셨다. 강의 내내 밝은 표정도 아주 인상적이었다. 바로 행복의 3요소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조경수산업에 대한 그분들의 생각과 발전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떤 산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그 분야 전문가들의 시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에 대한 전문가가 '나'인 것처럼 '조경수 산업'에 대한 전문가는 '조경수 산업 종사자'들인 것이다.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조경수산업의 강점과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약점과 위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시면서 어떻게 조경수 산업을 활성화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해주셨다.

그 날 나온 의견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째, 조경수에 대한 생산과 유통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며, 그에 기반을 둔 생산과 유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고부가가치 수종에 대한 설계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조경수 단가 현실화에 대한 요구이다. 넷째,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토종 수종에 대한 정책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한국정원 문화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시공 후 활착률을 높이려면 컨테이너 재배확대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재료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일곱째, 조경수에 대한 수요개발의 일환으로 구도심 녹지공간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한다는 의견이었다.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조경수 산업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그에 대한 해법이 짧은 시간 안에 모두 나온 것이다. 이 의견들은 그 간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필자는 산림청 공무원시절에 4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임산물 수출 정책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당시 산림청에서 주로 지원했던 수출 임산물은 밤, 감, 표고버섯, 송이버섯 등 식품

류였다. 이에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하는 것이 과제였던 차에 조경수와 분재를 수출유망품목으로 지정하여 한국조경수협회와 한국분재조합을 대상으로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게 되었다. 조경수 수출특성상 바이어가 원하는 수종과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조경수협회와 생산자들의 역할이 중요했다.

조경수협회 회원분들과 함께 수출유망국인 중국으로 해외시장개척 출장을 가서 대규모로 컨테이너 재배를 하고 있는 중국 조경수 단지를 방문하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컨테이너 재배를 확대해야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우리나라 조경수를 홍보하고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수출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 이후 중국 바이어를 초청하는 등 후속조치를 통해 드디어 민관협차원의 우리나라 조경수 수출이 시작되었다.

조경수 수출을 확대하려면 우선 검역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검역문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의 협력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그리고 잔뿌리를 잘 내려 활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컨테이너 재배를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또한 중국인이 좋아하는 홍단풍, 주목, 배롱나무 등의 전국적인 생산통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다.

코칭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내 안에 있다’는 말이 있다.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을 활성화하려면 우리 스스로 한국 조경수 산업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여 개선하고, 세계 어디에 내놔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경수를 건강하게 잘 길러내는 것이 첫 걸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의 기본

Basics of Container Production for Landscape Trees

김종진

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교수
(사)한국시설양묘연구회 회장

1. 수종선정과 목표규격 설정
2. **적정 시설과 자재 준비**
3. 생산기술 확보
4. 합리적인 운영방안 수립

컨테이너 조경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시설과 자재가 준비되어야 한다. 시설의 기본은 온실인데, 생산하고자 하는 목표 수종과 규격에 따라 이 시설의 종류와 형태, 크기 등이 달라지게 된다. 앞에서도 기술하였듯이 컨테이너의 조경수의 출발은 기본 용기묘이다. 일반적으로 산림용 용기묘(1~2년생)를 생산하는 양묘장은 이 규격의 용기묘를 비닐온실에서 생산하고 있다. 파종 후 발아 유묘의 안전한 생육과 집약적인 관리 ·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육 환경 조절이 가능한 온실에서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 조경수종의 기본 용기묘를 생산하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은 온실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느티나무나 참나무류와 같은 1년생 활엽수 기본 용기묘를 생산하고자 할 때 길이 50m, 폭 8m인 비닐온실(면적 400㎡)에서는 약 40,000본 정도가 생산될 수 있다.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 2년생인 경우는 같은 온실에서 약 70,000본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

앞에서 서술한대로 이 기본 용기묘를 한 번 이식한 조경수 용기대묘를 생산하는 경우는 온실은 필요치 않게 되며 관수, 시비, 지주, 차광과 같은 일정한 시설을 갖춘 '야외생산시설'이면 충분할 것이다. 컨테이너 조경수가 자라는 야외생산시설의 형태는 아주 다양한데 최소한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설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시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컨테이너 조경수 생산에 필요한 자재들인데 핵심은 용기(container)와 생육 상토(growing medium)이다. 특히 용기는 컨테이너 조경수를 생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재로 묘목이 일정 기간 동안 생육해야 하는 공간이고, 컨테이너 조경수의 가장 큰 장점인 뿌리 발달이 뛰어난 컨테이너 조경수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재료이기 때문이다.

잠깐 여기서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한다. 일전에 조경수협회 특강에서 필자가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에서 기본 용기묘의 중요성과 컨테이너 조경수를 생산하는 목적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강의하였다. 특히 컨테이너에서 생산되는 수목의 뿌리가 왜 노지에서 생산되는 수목의 뿌리보다 세근 발달이 뛰어나게 되는 원리와 함께, 사용하는 적정 컨테이너는 일부 컨테이너에서 발생하는 나선형 뿌리와 같은 비정상적인 뿌리 형성을 억제하는지 등 컨테이너 생산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강의 후 일부 참석자의 질문은, 왜 산림용 용기묘와 같이 작은 크기의 기본 용기묘에 대해 강의하느냐? 현재 생산 현장은 지금 키우고 있는 중간묘를 빨리 컨테이너에 이식시켜 컨테이너 조경수로 생산 · 출하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기술 제공이 우선적으로 급한 것 아닌가? 하는 질문들이었다. 매우 타당하고 현실적인 질문이다. 이 글도 마찬가지이다.

그 특강에서도 질문에 답하였지만, 그날의 특강도 또 본 글도 마찬가지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의 기본에 대해 우선 잘 알고 있자'하는 점이다. 물론 현재 시점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실이고 또 기본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더라도, 생산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점은 우리나라 조경수 생산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의 출발 시점인 지금 기본에 대한 의미를 다시 기억하자는 이야기일 뿐이다. 그날 시간이 없어 답변을 다 할 수는 없었지만 필자는 현장의 요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머지않은 미래에 지금과 같이 노지에서 생산되는 유묘와 중간묘는 없어질지도, 또 생산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생산 현장의 일부는 앞으로 기본 용기묘 또는 용기대묘 생산을 주축으로 하는 농장 또는 기업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지금 이미 이런 목적의 농장이 여럿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필자는 잘 알고 있다.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조경수 생산 관련자 모두, 우리 조경수 생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하나이다라고 강조하고 싶다.

가. 야외생산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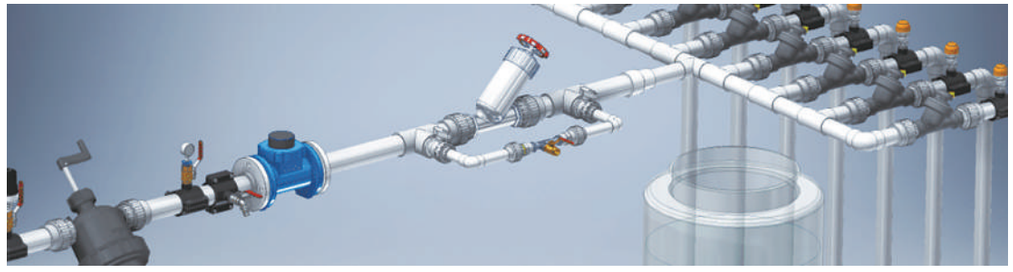
한 번 이식한 조경수 중 침엽수 2~5년생 및 활엽수 2~3년생 정도 크기의 용기대묘를 생산하기 위한 야외생산시설의 크기는 생산하고자 하는 수종과 생산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수종 고유의 수형과 생장 특성에 따라 적정 생육 공간의 크기가 수종과 나이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일정 면적당 생산 밀도가 결정되고 생산 목표 수량이 결정되면 전체 소요 면적이 결정될 것이다.

전체 면적이 결정되면 부지 정리, 배수로 설치 등의 기본 정리작업이 있게 되고 정리가 끝나면 전체 야외생산시설의 바닥 처리를 하게 된다. 이 바닥은 컨테이너 받침대를 이용하거나 투수성 부직포, 폐석 또는 작은 자갈을 깔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점은 원활한 배수이고, 가급적 컨테이너가 직접 토양과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전한 뿌리 발달을 위해 좋은 방법이다<사진 1>. 현재 대형 컨테이너의 경우는 바닥에 그대로 두고 키우는 경우가 많다<사진 2>.

<사진 1> 컨테이너 받침대 위(상),
투수성 부직포(하-좌), 자갈(하-우)을 깔고 컨테이너를 배치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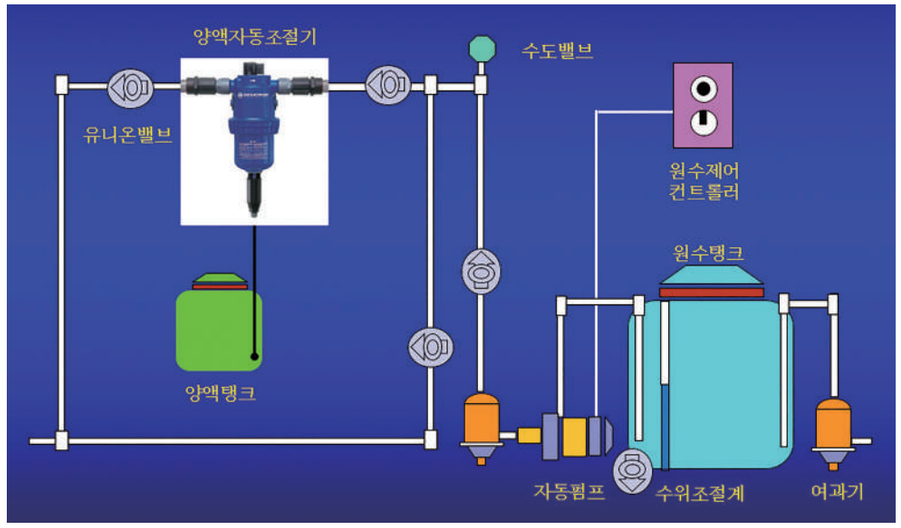
<사진 2> 노지 바닥에 그대로 둔 컨테이너 모습

바닥 준비가 끝나면 야외생산시설에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설이 관수시설과 시비시설, 지주시설 또 필요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차광시설 등이다. 관수시설은 생산 수종의 나이와 컨테이너 배치밀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배치밀도가 크면 하향식 스프링클러가 효과적이고, 배치밀도가 크고 생산 규모가 대면적일 경우 상향식 시스템도 가능하다. 수목이 자라면서 밀도가 낮아지면 하향식은 수분 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적관수(drip irrigation) 체계를 사용해야 한다. <사진 3>은 이스라엘 키부츠 나안(Kibbutz Naan)에서 개발 · 생산되고 있는 스프링클러와 점적관수시스템 사례인데, 이 키부츠 나안은 필자가 이스라엘에서 유학할 때 3개월 정도 생활했는데, 그때 이 스프링클러와 관수 파이프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선진 관수 시스템을 접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 3> 다양한 형태의 스프링클러와 점적관수시스템
(Kibbutz Naan Products from Yahoo)

컨테이너 조경수를 균일하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컨테이너 수목을 건전하게 생육시키기 위해서도 무기영양소를 정밀한 계획으로 공급해야 한다. 수목 생산자는 수목의 생육상태에 따라 시비량 및 횟수를 적절하게 조절하여야 한다. 시비시설은 기본적으로 관수시설에 양액자동조절기를 연결하여 관수 시 수압에 의하여 액비가 자동으로 혼합하는 시스템으로 갖추는 것이 편리하다<사진 4>.



<사진 4> 시비시설의 작동 개념도

현실적으로 완전자동시스템은 가격이 비싸므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반자동 시비시스템도 충분히 시비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경제적일 것이다. 기존 관수시설에 설치된 반자동 시비시스템은 액비를 양액 펌프를 지나가는 물의 양과 비례하여 액비를 공급하는 것으로 유속이 동력원이라 다른 동력이 필요 없다. 이 반자동 양액시비시스템은 낮은 압력에서도 액비가 주입되며, 양액조절기, 모터, 여과기, 양액탱크(200L) 각각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 5>. <사진 5>에 작게 보이는 비료 포대는 수용성 비료인 Multifeed 19인데 물에 잘 녹고 사용하기 편해 현재 액비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비료이다. 또한 시비시설은 강제 관수 라인으로 공급 배관과 연결되어 있지만 혹시 시비 조절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관수 물만이라도 공급될 수 있도록 설계 · 설치되어야 한다.

<사진 5> 반자동 양액시비시스템 구성 요소(Dosatr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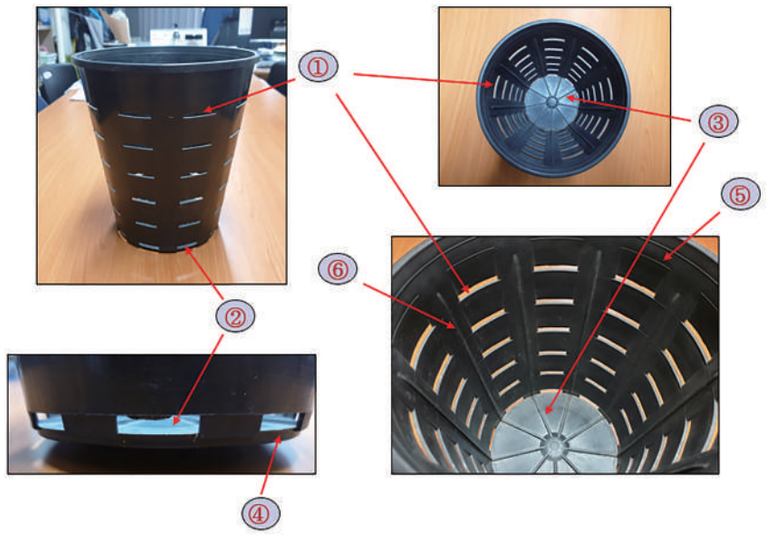
나. 용기(container)

1) 뿌리 발달을 유도하는 컨테이너의 특징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에 있어서 어떤 형태의 컨테이너가 이상적인 용기인가? 라는 질문에 필자는 서슴없이 답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컨테이너는 묘목의 뿌리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컨테이너는 묘목의 뿌리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금은 잘 알려져 있지만,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 선진국에서도 초기에는 뿌리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잘 몰랐기 때문에 좋은 뿌리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컨테이너를 설계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일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는 이들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여 필자는 본 글에서 컨테이너 수목의 뿌리 발달이 왜 잘 되며 그 이유와 원리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나선형 뿌리 발생을 방지함과 동시에 적정한 공기 단근(air pruning)을 유도하여 뿌리 발달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컨테이너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미 개발된 컨테이너<사진 6>를 예를 들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컨테이너 측면에는 뿌리가 쉽게 빠져나가 공기에 노출되어 단근(뿌리가 끊어짐)을 유도하는 공기 단근용 개구선(45개)이 있다<사진 6-①>. 일반적인 컨테이너의 경우 측면에 공기 단근용 개구선이 없으며, 이들 개구선은 생육하는 컨테이너 내부의 뿌리가 건조되면서 세근이 왕성하게 발달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자라나오는 뿌리가 외부로 쉽게 노출되도록 설계되었다.

다음, 컨테이너 최하단부의 공기 단근용 개구선(9개)<사진 6-②>은 수분이 공급되었을 때 과도한 수분이 쉽게 배출되도록 한다. 그리고 컨테이너 바닥은 막혀있고 측면으로 뿌리가 뻗어나가게 하는 유도선<사진 6-③>을 만들어 뿌리가 컨테이너 최하단부의 개구선<사진 6-②>으로 나가게 유도한다. 따라서 컨테이너 최하단부의 개구선은 공기 단근, 수분 배출 및 측면으로 뿌리를 유도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에 따라 다른 측면 개구선에 비하여 더 큰 형



<사진 6> 용적 4L 컨테이너 (디자인특허 제30-2006-0015968, ㈜수프로)

태임을 알 수 있다. 컨테이너 내부 최하단부가 지면보다 약간 높게 되도록 턱(0.3㎝)<사진 6-④>을 설계하여 컨테이너 하부가 직접 지면에 닿지 않게 만들어져 있다.

또 뿌리가 비이상적으로 옆으로 자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뿌리방지선(9개)<사진 6-⑤>를 만들어 뿌리가 아래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공기 단근용 개구선으로 뿌리가 유도되게 한다. 컨테이너 내부에 융기선(9개)<사진 6-⑥>을 만들어 뿌리가 옆으로 계속 휘감으면서 자라는 것을 방지하고 컨테이너의 아래 방향으로 뿌리가 자라도록 유도하여 공기에 노출된 뿌리가 단근이 이루어져 세근이 발달하는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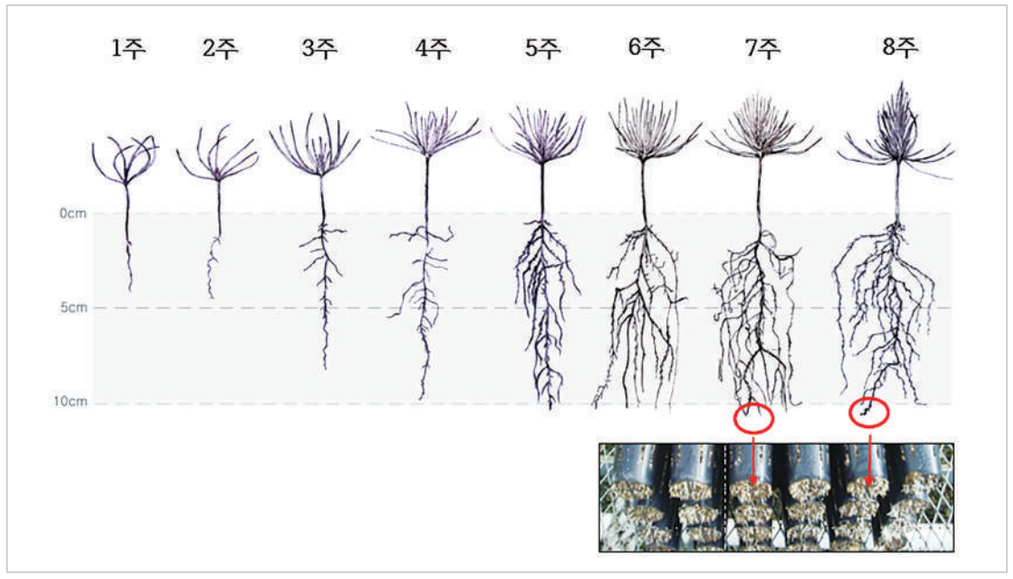
<사진 7>은 이 4L 컨테이너에서 생육한 무궁화, 영산홍, 화살나무이다.

<사진 7> 무궁화, 영산홍, 화살나무 3년생 컨테이너 수목 (왼쪽부터, 4L 컨테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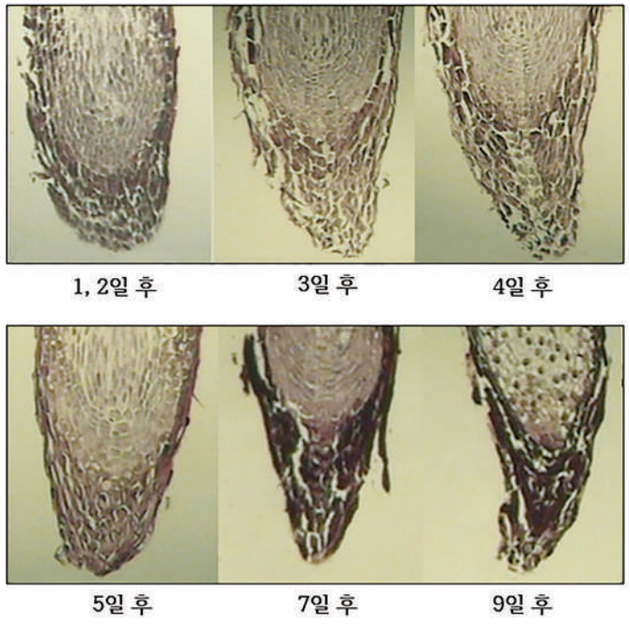
2) 컨테이너 내 뿌리의 발달 원리

<사진 8> 망 구조 컨테이너 받침대 위에 배치된 컨테이너

컨테이너 내에서 자라는 수목의 뿌리 발달이 잘되는 이유, 첫 번째는 <사진 6>에서 보듯이 컨테이너의 특징에 의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컨테이너가 망 구조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 받침대 위에 배치<사진 8>되기에 컨테이너 배수구를 빠져나간 뿌리가 망으로 빠져 공기 단근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소나무의 경우 발아 후 8주 정도가 지나면 뿌리의 끝이 컨테이너의 배수구에 도달하여 빠져나가면서 단근이 되기 시작한다 <사진 9>.



<사진 9> 소나무 컨테이너묘의 발아 후 뿌리 발달과정과 배수구에 도달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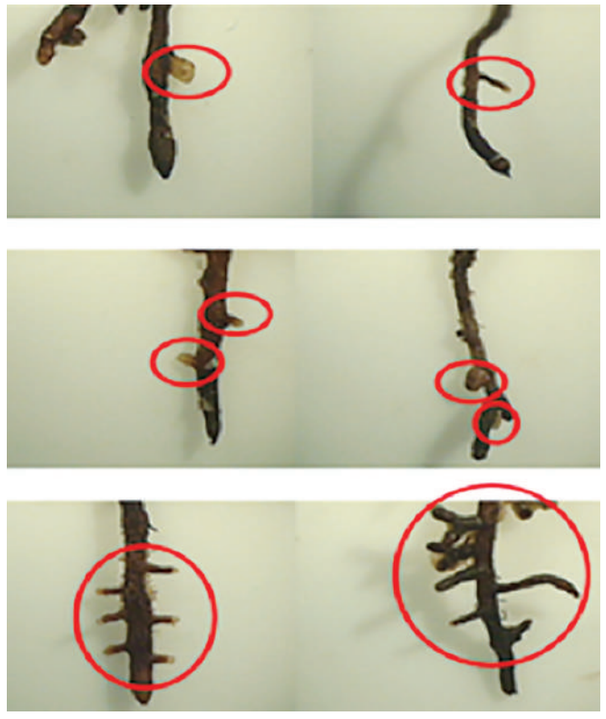


<사진 10> 컨테이너 외부로 빠져나가 근관조직의 변화과정 (×300)

컨테이너 내에서 생육하던 뿌리가 컨테이너 외부로 빠져나와 공기에 노출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출된 뿌리의 끝 근관조직(root cap tissue)도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사진 10>. 노출된 후 1~2일 정도는 끝부분이 둥근 형태였으나 3일이 되자 근관의 형태가 길쭉한 형태로 변하면서 근관 끝부분의 리그닌화가 좀 더 진행된 모습이다. 4일이 되면서 근관의 리그닌화는 조금 더 진행되어서 좀 더 길쭉한 형태로 변했고 5일이 되자 4일째 보였던 근관의 긴 길이 형태는 조금 짧아졌다. 뿌리조직을 염색한 safranin은 그 특성상 리그닌화된 부분을 붉게 염색시키는데 그 정도에 따라 색이 다르게 표현된다. 따라서 5일째부터 근관 부분은 전과는 달리 더욱 붉은색을 나타냈고 6~9일째에도 마찬가지로 붉은 선홍색을 띠었으며 근관의 말단 부위는 조금씩 손상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수구를 빠져나간 대부분의 뿌리는 5~7㎜ 정도 자라다가 고사<사진 11>하고, 고사한 뿌리 바로 윗부분에서 새로운 측근이 발달하는데, <사진 12>는 새로운 측근이 1개, 2개 또는 여러 개가 발생한 모습이다. 컨테이너 내에서의 뿌리 발달은 이런 과정을 거쳐 수많은 세근들을 발생시켜 결국 컨테이너 내부 공간 전체를 가득 채우게 된다.

<사진 11> 컨테이너 외부로 빠져나가 고사한 뿌리(×40)



<사진 12> 공기 단근이 이루어진 뿌리 바로 윗부분에서 새롭게 발생한 측근(×40)

네번째 이야기 (마지막편)

"꽃과 향기가 좋은"

산분꽃나무속 Genus *Viburnum*

김종근

글/사진 : 플러스가든 대표 김종근
Homepage : www.plusgarden.com

지난편에 이어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조경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산분꽃나무속 식물들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반들분꽃나무 '프라겐스'

Viburnum × 'Pragense'

Viburnum 'Pragense'
하얀색 꽃차례와 광택이 있는 잎

1958년 미국 국립수목원에서 우단아왜나무와 우틸레비브루눔(*V. rhytidophyllum* × *V. utile*)의 교잡을 통해 육종되었다. 전체 생김새는 둥근 모양으로 자라는 늘푸른 작은키나무로 키는 약 3~4m까지 자라고 지상부에서 줄기가 많이 올라온다. 잎은 길쭉한 달걀모양으로 윗부분 표면에는 윤기가 흐르면서 깊게 패인 잎맥이 발달한다. 잎 길이는 약 10cm 정도 되는데 아랫면에는 하얀색 털로 뒤덮여있다. 늦은 봄이면 분홍색을 띤 꽃봉오리가 형성되어 점차 둥근 지붕 모양의 하얀색 꽃송이가 달린다. 상록성임에도 추위에는 강해 영하 23도까지는 자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 중부권에서 시도해 볼 필요성이 높은 가막살나무 종류이다. 특히 영국왕립원예협회의 우수정원식물상(AGM)에 선정될 정도로 대중성과 관상가치가 인증된 품종이기도 하다.

벚잎분꽃나무

Viburnum prunifolium

Viburnum prunifolium
전체모습

벚나무 잎을 닮은 잎

미국 동부와 중부 미주리지역에 자라는 가막살나무 종류이다. 잎이지는 작은키나무로 수고는 약 3~4m, 수관폭은 2~3m 정도까지 자란다. 꽃차례는 지름 약 11cm 정도의 크기로 크림빛을 띠는 하얀색 꽃송이로 둥글게 모여

편평한 우산모양을 닮은 하얀색 꽃차례

피는데 향기는 거의 없다. 전체적으로 가막살나무와 비슷하지만 잎이 마치 벚나무잎과 닮은 점이 특징이다. 잎의 색깔은 구릿빛 녹색을 띠다가 가을철에는 붉은색으로 변한다. 열매는 분홍빛 장미색에서 가을철 청흑색으로 변하는데 식용이 가능하며 잼을 만들어 보관하였다가 먹을 수도 있다. 양지 또는 반음지 지역의 촉촉하면서 배수가 잘되는 토양에서 잘 자라지만 점토질 토양과 가뭄에도 강해 관리가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꽃이 지고 난 후에는 단정하게 전정하여 생울타리로 이용할 수도 있다. 꽃과 열매로 인하여 벌, 나비 및 야생조류 유인 효과가 높은 나무이다. 따라서 조그만 개인정원에 심으면 좋으며 공해와 병충해에도 강해 공원 및 기타 녹지공간에도 좋다. 게다가 영하 40도까지 노지 월동이 가능하여 우리나라 전역에 심어 가꿀 수 있다.

좀우단아왜나무

Viburnum × rhytidophylloides

Viburnum × rhytidophylloides
하얀색 꽃차례와 주름진 잎

란타나비부르눔과 우단아왜나무(*V. lantana* × *V. rhytidophyllum*)의 교잡을 통해 육종되었다. 반상록성으로 전체적인 생육형은 하늘을 향해 곧게 서는 모양이며 약 2~3m까지 자란다. 나무껍질은 밝은 회색을 띤다. 잎은 길이 약 15cm, 폭 8cm 정도되는데 길쭉한 달걀모양의 두툼한 잎 표면에는 깊고 뚜렷하게 패인 잎맥이 발달하며 뒷면은 연한 갈색을 띠는 솜털이 발달한다. 늦은 봄철 작은 꽃들이 모여 약 10cm 정도 크기의 둥근 우산모양 꽃차례가 달린다. 꽃에는 향기가 약간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도의 냄새는 아니다. 한편 꽃이 진 자리에는 관상가치가 뛰어난 붉은색 열매가 달리는데 점차 까만색으로 익는다. 염분에 강하여 해안가 식재에 좋으며 전정에도 강하여 가장자리 수벽이나 생울타리용으로도 좋다. 또한 정원 안뜰이나 산책로, 액센트 식재용으로도 훌륭하다. 영하 18도까지 월동이 가능하여 추위에는 강한 편이지만 우리나라 중부 이북 지역에는 따뜻한 미기후를 참고하여 식재하는 것이 좋다.

좀우단아왜나무 '윌로우우드'

Viburnum × rhytidophylloides 'Willowwood'

Viburnum × rhytidophylloides 'Willowwood'
빽빽하게 발달하는 꽃차례

반상록성 작은키나무로 약 3m까지 자라는데 생김새는 둥근모양이다. 생육형은 가지가 위로 자라다가 아치모양으로 처지면서 자란다. 전체적인 잎의 색감은 짙은 녹색을 띠는데 표면에는 깊고 뚜렷하게 발달한 잎맥이 있다. 늦은 봄이면 크림빛을 띠는 작은 흰색꽃들이 콜리플라워처럼 빽빽하게 모여 둥근 꽃송이를 이룬다. 꽃이 진 후에는 달걀모양의 녹색 열매가 붙는데 점차 붉은색에서 까만색으로 익는다. 원종인 좀우단아왜나무보다 잎이 덜 넓고, 덜 길고, 덜 녹색이면서 덜 주름진 점이 구별된다.

우단아왜나무

Viburnum rhytidophyllum

Viburnum rhytidophyllum
전체모습

하얀색 꽃차례와 잎

잎 뒷면에 발달하는 갈색을 띠는 하얀색 솜털

밝은 붉은색을 띠는 열매

중국이 원산지로 영명이 Wrinkled Viburnum 또는 Leatherleaf Viburnum인데 이는 주름진 가죽질 잎의 특징에서 붙여졌다. 수고 및 수관폭이 약 2~3m까지 자라는 늘푸른 작은키나무로 두툼한 잎에는 뚜렷한 잎맥이 발달하고 표면에 광택이 있다. 잎의 아랫부분에는 갈색을 띠는 하얀색 솜털이 발달한다. 늦은 봄에는 크림빛을 띠는 흰색의 작은 꽃들이 모여 끝부분이 편평한 우산모양의 꽃송이를 이룬다. 꽃이 진 자리에는 타원모양의 열매가 달리는데 붉은색이다가 점차 까만색으로 익는다. 식용은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번식은 여름철 반숙지삽으로 가능하다. 양지 또는 반음지, 유기질 풍부한 토양, 약간 촉촉하면서 배수가 잘되는 토양에서 잘 자라며, 한번 뿌리를 내리면 가뭄에도 무척 강하다. 반면 겨울철 차갑고 건조한 바람을 막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겨울철에도 남아있는 늘푸른 넓은 잎의 관상가치가 뛰어나 겨울정원등에 이용해도 좋은 소재이다. 영하 18도 정도까지 월동이 가능하므로 중부지방에서는 미기후를 고려하여 식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단아왜나무 '로세움'

Viburnum rhytidophyllum 'Roseum'

Viburnum rhytidophyllum 'Roseum'
빽빽한 수형

원종(*V. rhytidophyllum*)과 대부분 비슷하지만 꽃봉오리가 분홍색을 띠는 점이 특징인데, 늦은 봄철 꽃이 피면서 점점 크림빛을 띄는 황백색 꽃으로 개화한다.

분홍색을 띠는 꽃차례

우단아왜나무 '바리에가툼'

Viburnum rhytidophyllum 'Variegatum'

원종(*V. rhytidophyllum*)과 비슷하지만 잎에 크림색의 불규칙한 무늬가 발달하는 점이 특징이다. 정원에 새로운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할 때 이용하면 좋으며, 4계절에 걸쳐 독특한 관상미를 연출할 수 있다.

Viburnum rhytidophyllum 'Variegatum'
불규칙한 크림색 무늬가 발달한 잎

황실백당나무

Viburnum sargentii 'Flavum'

Viburnum sargentii 'Flavum'
노란색 열매

백당나무와 비슷한 생김새로 잎이 세갈래로 갈라지는데 꽃이 지고 난 후 붙는 열매의 색깔이 황색을 띠는 점이 특징이다.

백당나무 '서스쿼해나'

Viburnum sargentii 'Susquehanna'

Viburnum sargentii 'Susquehanna'
꽃차례의 바깥쪽에 발달하는 무성화

1966년 일본에서 들여온 씨앗 실생묘 중에 미국 국립수목원에서 선발 육종하였으며, 줄기에는 두툼한 코르크층이 발달한다. 늦은 봄 하얀색 꽃이 풍부하게 피고 뒤이어 황록색 열매가 달렸다가 점점 붉은색으로 변한다. 새로 나오는 잎은 구릿빛 자주색을 띠다가 가을철 단풍색은 노랑에서 빨강색으로 아름답게 변한다.

붉은단풍과 열매

차가막살나무
Viburnum setigerum

Viburnum setigerum
전체모습

구릿빛을 띠는 잎

타원모양의 붉은 열매

중국 중부, 서부지방이 원산으로 Tea Viburnum이라는 영명은 잎을 차로 이용하는 데서 붙여졌다. 약 4m까지 자라는데 지상부에서 여러 줄기가 올라오며 가지는 위를 향해 자라면서 옆으로 퍼진다. 잎의 끝부분은 뾰족하고 길쭉한 달걀모양인데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살짝 발달한다. 잎은 약 12cm까지 자라는데 봄철 청록색에서 진녹색을 띠다가 꽃이 필 무렵 구릿빛을 띠고 가을철에는 자주색으로 물든다. 늦은 봄에서 이른 여름철 무렵 하얀색의 작은꽃들이 모여 꽃송이를 이루며 그 자리에는 뒤이어 오렌지빛 노란색 열매들이 달렸다가 점차 밝은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아래로 늘어지는데 무척 매력적이다. 전정에 강해서 생울타리용으로도 좋으며 수생식물원, 계류원 또는 연못 등 물가 주변에도 잘 어울린다. 추위에는 영하 29도까지 월동할 정도라 우리나라 전역에 심어 가꿀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로 처진듯 자라는 잎

오모수
Viburnum suspensum

일본 오키나와 원산의 작은키나무로 키는 약 3.5미터까지 자란다. 잎은 달걀모양으로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발달하며 길이 9cm, 폭 5cm 정도까지 자란다. 작은 가지는 짙은 갈색을 띠며 거친 질감을 갖는다. 꽃은 봄철 새로나온 가지 끝에 핑크색 꽃봉오리가 형성되었다가 작은꽃들이 하얀색으로 모여피어 편평한 우산모양의 꽃차례를 이룬다. 간혹 여름철에 꽃이 피기도 하며, 꽃에서는 향기가 난다. 특히 야생의 느낌이 나는 장소에서는 가을철 붉은 열매가 매우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양지, 반음지의 배수가 잘되는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오래전부터 미국 플로리다 지역에서 정원수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용되고 있다. 가장자리화단, 생울타리, 수벽에 이용하면 좋은 효과를 연출할 수 있으며, 염분에 강해서 해안가 조경에도 좋다. 추위에는 다소 약하여 영하 12도까지 월동 가능하므로 우리나라 중부이남 해안가 지역 또는 남부지방에 식재하는 것이 좋다.

Viburnum suspensum
늘푸른잎과 앙증맞은 꽃

월계분꽃나무
Viburnum tinus

Viburnum tinus
하얀색 꽃과 잎

유럽 지중해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저절로 자란다. 늘푸른 작은키나무로 수고 및 수관폭이 각각 3m, 2m까지 자란다. 잎은 진한 녹색의 타원모양으로 월계수의 잎을 닮았다. 꽃은 늦겨울부터 봄철 사이에 꽃봉오리때는 분홍색을 띠지만 꽃이 벌어지면서 점점 크림색을 띤 흰색의 꽃으로 핀다. 뒤이어 청흑색을 띤 열매가 달리는데 매우 매력적이지만 식용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서구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원 및 공원 등지에서 아주 널리 쓰이고 있는 가막살나무 종류로 번식은 초여름 반숙지삽으로 가능하다. 산성 및 중성토양에서 무난하게 자라며, 유기질이 풍부하면서 배수가 잘되는 토양에서 더 잘 자란다. 전정에 강하여 생울타리용으로도 좋으며 겨울철 꽃이 피기 때문에 윈터가든용으로 훌륭하다. 특히 월계분꽃나무 원종을 비롯한 품종들의 꽃은 벌, 나비들이 많이 모여들게 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열매나 가지를 고라니, 노루 등이 좋아하지 않아 야생동물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심어도 피해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특히 뿌리가 제대로 활착만 되면 가뭄에도 무척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꽃이 피고 난 후 전정을 통해 모양을 다듬을 수 있지만 열매를 감상하지 못할 수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고 가드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한성은 영하 12도까지 견딜수 있으니 따뜻한 남쪽지방에 심는 것이 안전하다.

월계분꽃나무 '이브 프라이스'
Viburnum tinus 'Eve Price'

Viburnum tinus 'Eve Price'
분홍빛을 띠는 꽃차례

원종과 비슷하지만 전반적으로 단정하면서 작고 아담한 크기로 자란다. 달걀모양을 닮은 잎이 원종인 월계분꽃나무에 비해 좀더 작은 점도 구별된다. 또한 늦은 겨울부터 진분홍색의 작은 꽃봉오리들이 벌어지면서 점차 편평한 우산모양의 분홍빛 하얀 꽃송이를 이루는 것도 특징이다. 뒤이어 달리는 열매는 짙은 금속성 느낌의 파랑색을 띤다. 꽃과 열매의 관상가치가 높아서 영국왕립원예협회들의 우수정원식물상인 AGM(Award of Garden Merit)을 수여받았다.

월계분꽃나무 '그웬리안'
Viburnum tinus 'Gwenllian'

Viburnum tinus 'Gwenllian'
전체모습

원종과 비슷하지만 붉은색 꽃봉오리가 피면서 분홍색을 띤 흰색 꽃이 빽빽하게 모여 편평한 우산모양의 꽃차례를 이룬다. '이브 프라이스'와도 비슷하지만 훨씬 진한 분홍색을 띠는 점이 구별된다. 키와 폭은 각각 약 2.5m까지 자란다. 꽃에 향기도 있으며 금속느낌의 달걀모양 파란색 열매가 매력적이다. 영국왕립원예협회(RHS)의 AGM을 수여받아 대중성과 관상가치를 인증받았다.

진한 분홍색을 띠는 꽃차례

월계분꽃나무 '이스라엘'
Viburnum tinus 'Israel'

Viburnum tinus 'Israel'
순백색의 꽃

늦가을부터 늦봄까지 빨간색 꽃봉오리가 점차 벌어지면서 순백색의 작은 꽃들이 모여

둥근 꽃송이를 이룬다. 키와 폭은 각각 2.5~4m 정도까지 자란다. 가뭄에 강하고 꽃이 핀 후 전정을 통해 생울타리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원종인 월계분꽃나무에 비해 잎이 더 크고 광택이 있으며 하얀색 꽃이 더 밀랍같은 느낌이 든다.

월계분꽃나무 '바리에가툼'

Viburnum tinus 'Variegatum'

Viburnum tinus 'Variegatum'
전체모습

잎가장자리에 발달하는 크림색 무늬

원종(*V. tinus*)과 비슷하지만 잎의 가장자리에 크림빛 하얀색 무늬가 발달하는 점이 구별된다.

겨울부터 이른봄까지 개화하는 꽃도 예쁘지만 무늬 잎의 관상가치도 높아 사계절용 정원을 꾸미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격이다.

산가막살나무

Viburnum wrightii

Viburnum wrightii
아랫쪽에서 바라본 꽃차례와 뚜렷한 잎맥

편평한 우산모양의 하얀색 꽃차례

약 3m까지 자라는 잎이지는 작은키나무로 우리나라의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등 백두대간 지역에 저절로 자라며 일본에서도 자란다. 잎은 마주나기하는데 달걀을 거꾸로 세운 모양이며 끝이 뾰족하다. 잎의 크기는 8~14cm 정도 되는데 잎 뒷면 맥 위와 맥의 겨드랑이에 털이 발달한다. 잎의 가장자리에는 이빨모양의 톱니가 있으며 턱잎은 거의 없다. 꽃은 5~6월경 가지 끝에 편평하면서 납작한 반원모양의 꽃송이가 하얀색으로 핀다. 꽃받침에는 털이 없고 수술이 작은꽃부리보다 긴 특징이 있다. 뒤이어 9~10월초 달걀을 닮은 둥근모양의 지름 약 8mm 정도의 열매가 붉은색으로 익는다. 씨앗으로 번식할 때 가을에 종자를 채취하여 2년간 노천매장 한 후 파종하면 발아가 잘된다. 꺾꽂이는 녹지 및 반숙지삽으로 번식이 가능하다. 양지, 반음지 및 촉촉하면서 배수가 잘되는 사질양토에서 잘 자라며 특히 부식질이 풍부한 토양을 좋아한다. 해안 바닷가에서도 생육이 양호하지만 공해에 견디는 성질은 다소 약하여 숲 가장자리에 심는 것이 좋다. 강원도 이북지역에서 저절로 자라는 만큼 추위에는 무척 강해 전국에 심어 가꿀 수 있다.

참고문헌

- 송기훈, 권용진, 김종근, 원창오, 이정관 (2018) 한국정원식물A-Z. 디자인포스트
- 플러스가든 http://www.plusgarden.com
- Hillier(1995) The Hillier Gardener's Guide to Trees & Shrubs. David & Charles.
- KPNI http://www.nature.go.kr/kpni
- Liberty Hyde Bailey(1976) Hortus Third - A Concise Dictionary of Plants Cultivated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Macmillan.
- RHS Plant Finder http://apps.rhs.org.uk/rhsplantfinder/
- RHS(1996) A-Z Encyclopedia of Garden Plants. DK.
- The Plant List http://www.theplantlist.org/
- The Royal Horticultural Society(1999) The New Royal Horticultural Society Dictionary of Gardening. Macmillan.
- Missouri Botanical Garden http://www.missouribotanicalgarden.org/

농장입구풍경

적지적수(適地適樹) 우량 조경수 재배하는

「유한회사 세아농원 · 봄 해 원」

글 · 사진 경남중부지회 **박 정 기**

장수근 대표

'알맞은 땅에 알맞은 나무를 골라 심는다.'

적지적수(適地適樹)는 심어서는 안 될 곳에 심지 않고 심어서는 안 될 나무는 심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적당한 땅과 적당한 나무가 만나야 한다는 신념으로 양질의 조경수를 생산하고 있는 (유)세아농원 · 봄해원은 한국조경수협회 전북동부지회 회원사이며 장수근 대표는 협회 중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장수근 대표는 1974년 병역을 마친 후 전북일보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앞으로 조경수 재배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판단하여 1983년 전북 완주군 소양면 일대 0.16ha 토지를 임대하여 철쭉 50,000주를 심으면서 조경수 재배를 시작하였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산지(山地)에서 부가가치 높은 조경수를 재배하는 것이 녹록지 않았으나 먼저 시작한 사람들의 도움과 본인의 끈질긴 노력에 황폐했던 땅은 우량 조경수 재배농장으로 거듭남으로서 조경수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소득창출로 이어졌고 규모의 경제를 거두어 지역주민 고용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시너지를 내는 조경인으로서 귀감이 되고 있다.

장 대표는 1985년 3월 근주농원을 설립하였고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유망수종을 입식(入植)하고 생산포지의 기후, 표고(m), 토질, 그리고 인력과 장비 수급 사정에 맞는 수종과 재배방법을 익히며 점차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지금은 총 46ha에 150,000여주의 품질이 우수한 조경수목을 생산하는 전문업체로 성장하였다.

현재 (유)세아농원 · 봄해원은 한국조경수협회가 인증(認證)하는 모범농장이다. 장수근 대표는 조경수생산 단지화로 우량한 조경수 생산, 산지(山地) 자원화,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2021년 2월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진안 단양농장 이팝나무 사이로 보이는 마이산

소나무, 전나무, 구상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주목, 이팝나무, 칠엽수, 목련, 복자기, 마가목, 팥배나무, 대왕참나무, 산사나무, 때죽나무, 쪽동백나무, 보리수 등을 재배하는 진안 단양농장 정상부 전경. 임도(林道)가 있는 능선에는 장송을 심었고, 그 아래 남쪽 사면에는 이팝나무를 심어 수고(樹高)가 장송 지하고(枝下高)에 다 달아 겨울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느티나무, 이팝나무, 단풍나무, 산딸나무, 팥배나무, 계수나무, 회화나무, 중국단풍, 산수유 등 낙엽활엽수를 재배하는 임실 관촌농장 입구의 풍경.

진안 단양농장 이팝나무 재배포지에서 장수근 대표

1983년 장수근 대표는 고향인 전북 완주군 소양면 일원에 규모 있고 생산성 높은 조경수 농장을 개발하기 위해 임도를 개설하고 관정을 설치하였다.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해 잘 발효된 유기질 퇴비를 시비하였다. 그리고 가능한 농약이나 제초제 사용을 억제하여 식재 지반을 보호하면서 건실한 조경수를 생산하였다. 지금도 그 재배농법 기조는 변함이 없다.

어언 38년을 나무와 살면서 간혹 실패도 있었지만 그대로 자양분이 되었다. 이제는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후학들에게 조경수 생산기술을 전수하고 있는데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적지적수 이론이다. 나무(수종) 보다 땅(토질)을 먼저 알아야 한단다. 이는 배수조건이 비교적 좋았던 논에 주목을 심었다가 계속되는 비에 모조리 죽어버린 쓰라린 경험에서 얻은 결론이자 지속가능한 재배기술이라 강조한다. 산지를 조경수 재배포지로 개발할 경우 국소적 위치에 따라 미기후뿐만 아니라 토질도 다르게 때문에 전체 포지를 잘게 쪼개어 분석하고 나서 최적의 수종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안 단양농장 산사나무 포지. 붉은 열매가 멀리서도 인식 된다.
비교적 일찍 입식한 수종으로 근경 12cm이상 성목을 보유하고 있다.

진안 단양농장 칠엽수와 백목련 성목 포지. 수형이 고르고 좋다.

익산농장 중국단풍과 이팝나무, 진안 단양농장 주목, 두 농장 모두 굴취 및 상차작업이
용이한 호조건을 갖추고 있다.

상(上)급 조경수 생산 비율은 전체대비 관목 90%, 교목 60%.

우리 협회 장수근 이사가 대표로 있는 (유)세아농원 · 봄해원의 재배포지 면적은 15만평에 가깝다. 그 중에서도 관목을 재배하는 포지 5만평은 완주와 익산에 있는 논밭이고, 교목의 재배포지는 진안과 임실에 있는 임야이다.

관목과 교목을 재배하여 출하시기에 상(上)급이 되는 비율을 물었더니 아무리 정성스럽게 키워도 생산자로써 원하는 값을 받을 수 있는 비중은 관목이 최대 90%, 교목은 최대 60% 이하 정도라고 말한다. 그 이상 받는 것은 욕심이고 목표치를 올리려고 하면 그만큼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중(中)급 이하 수목이 10%에서 30%까지 뒤떨어지는 나무가 있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게 지론이다.

아무리 나무 값이 좋다고 해도 농사를 잘못 지으면 밑진다.

농사는 농심으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 장 대표의 지론이다. 시세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단다. 값이 싸다고 해도 제대로 키운 나무는 제값을 받고 값이 좋더라도 실농(失農)하면 밑진다고 말한다. 습해(濕害)와 가뭄, 조경수 재배에서 가장 기본이자 어려운 물관리는 사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포지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강조한다. 이는 극한성과 불규칙성으로 나타나는 기상을 수시로 접하는 기후위기시대 시사점이 크다. 그밖에 전정, 시비, 방제에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하고, 하늘만 쳐다보거나 갑자기 수요(시세) 폭등과 같은 요행수를 바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진안 단양농장 산수유와 전나무, 구상나무 포지

조경수 값은 10년 주기로 폭락과 반등을 거듭한다. 많이 심지 말고 수종별 생리적 특성에 맞는 최적의 포지에서 제대로 키워야 한다. 일본의 조경 경향을 주시하되 언제나 본업에 충실해야.

장수근 대표는 조경수를 심은 지 37년차, 사업으로 시작한지 24년차, 조경수협회 가입 한지 16년차이다. 그 사이에 부업이 본업 되었고 중견을 넘어 원로에 가깝다.

돌이켜보면 이팝나무, 대왕참나무, 산사나무, 팥배나무, 쪽동백나무 등 한발 빠르게 유망수종을 선점하여 호황을 누리기도 하였다. 실생, 삽목, 접목, 조경수 유목(幼木) 생산부문에서는 전문가 반열에도 올라있다. 이제 조경학을 전공한 아드님이 10년 전부터 가업(家業)을 함께하고 있다.

근경 25cm 산딸나무

적지적수(適地適樹) 조경수재배의 전문가 장수근 대표는 일본 조경 업역(業域)의 추세를 잘 읽고 국내 동향을 살펴 시사점을 찾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아무리 불황이라도 "본업에 충실한 사람이 망하는 경우를 본적이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왕벚나무 출하한 자리에 심은 대왕참나무 치수(稚樹) 생육상태를 살피는 장수근 대표

진안 제2농장 대왕참나무 포지.
근경 20cm이상 성목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입목밀도도 비교적 낮아 기계 굴취가 무난하다.

진안군 단양농장의 소나무.
조경수 재배를 시작해온 세월만큼 자랐다.

철쭉, 회양목, 주목, 화살나무, 수수꽃다리 등 관목류를 재배중인 장수농장의 4계절 풍경

임실 관촌농장 느티나무, 이팝나무, 산딸나무 등 낙엽활엽수 포지.
성장력이 좋은 대규격 느티나무는 도로 가까이 식재하였다.
차량과 장비가 진입하는 임도는 낮고, 수목이 서 있는 식재 지반은 높아 굴취 및 상하차 작업 조건이 최적이다.

적지적수(適地適樹) 우량 조경수 생산/유통

(유)세아농원
봄 해 원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211
전화 063) 241 – 9277
전송 063) 244 – 2002
이메일 bom9277@naver.com
휴대폰 010-3658-9980 (장수근 대표)

꿈꾸는 초등학교 소나무 숲

이용직
自號 빈수레

시인, 소설가. 2011년 《산림문학山林文學》신인상 소설 · 2011년 《창조문예》신인상 시 등단
장편소설 「편백 숲에 부는 바람」(2012년), 「그 숲에 살다」(2014), 「억새바람의 전설」(2017).
시집 「물소리 바람소리」(2011), 수필집 「산, 그리고 인간과의 만남」, 「솔숲은 그 자리에」(2012)
동화집 「산불소방관」(2003), 「숲짱 할아버지와 자작나무 친구들」(2019),
수상 2014년 제3회 녹색문학상,
2019년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주관 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사업 당선작 선정.

누구에게나 초등학교 시절은 그립다. 세상살이가 지치고 힘들 때 초등학교 때 추억을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지는 까닭은 그 시절이 그립기 때문이다.
시골의 작은 마을 아이들이 모이는 초등학교, 이웃집 부엌살림조차 꿰뚫어 보고 사는 농촌 마을에서 허물없이 어울렸던 깨복쟁이 친구들. 억겁의 세월이 흐른다 해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정겨운 소꿉친구들. 그 가물가물한 추억을 안고 있는 초등학교에 소나무 숲이 있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엄마 손을 잡고 입학하던 날 처음 본 소나무 숲, 그 소나무밭에는 작은 소나무도 있었고 하늘 꼭대기까지 훌쩍 자란 큰 소나무도 있었다. 그 소나무밭에서 아이들은 뛰놀았고 선생님은 또 병아리처럼 재잘대는 아이들을 가르쳤다. 넓고 시원한 소나무 그늘에서 노래와 무용을 가르쳐 주시고 술래잡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이 나라의 기둥감으로 길러내셨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학교를 떠났고 함께 크던 소나무도 나이를 먹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학교에 들어올 때 앉은뱅이 나무들은 어느 사이 어른 나무가 되었고, 아이들이 자라서 졸업을 하고 학교를 떠나자 어른 나무는 늙어서 고목이 되었다.

이 나무들이 병을 앓고 있었다. 고목이 된 소나무 수관에는 죽은 가지와 묵은 잎들이 겹겹이 쌓였고, 원줄기 곳곳에는 나무껍질이 벗겨져 부패가 일어나고 있었다. 소나무가 딛고선 토양은 딱딱하게 굳어있어 호흡이 어려웠고, 숲속에는 소나무가 제일 싫어하는 물이 질척거리는 습지가 있었다. 어디 그뿐이던가, 누렇게 빛바랜 소나무 잎에서는 솔잎혹파리가 알을 슬고, 땅속 자양분이 부족한 소나무는 허기에 지쳐 기운을 잃어가고 있었다.

제대로 된 숲 관리를 한 번도 해주지 못한 전라남도 화순군 웅치초등학교 소나무 숲. 이 숲을 정비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답압된 토양을 긁어주고 상토를 처리함으로써, 쇠퇴화 된 소나무의 뿌리발달을 촉진하는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부패가 일어나고 있는 부위에는 외과적인 수술을 시행하여 피해의 확산을 막았다. 솔숲에 고인 물은 암거를 설치하여 배수시키고 나무 둥치를 감고 올라가는 담쟁이덩굴을

제거하였다. 마지막으로 솔잎에 들어앉아 진액을 빨아먹는 솔잎혹파리를 구제하는 약제를 살포하고, 쇠약해진 소나무 수세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영양제를 주사하여 사업을 마쳤다.
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의 푸른 꿈! 그들의 가슴 설레는 추억들이 오롱조롱 매달린 소나무 숲에서, 모처럼 가슴 뿌듯한 정을 느껴본다.

작업을 마치던 날, 시원한 솔바람을 맞으며 팔을 베고 누웠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비몽사몽 간에 의관을 정제한 노인이 꿈속에 나타나서 말을 걸었다.

"나무 의사 양반, 내 나이 올해로 일백 살이 넘었소. 이 나이를 먹도록 나무 의사가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병든 나를 이렇게 꼼꼼히 살펴주니 고맙소. 내가 그 보답으로 옛날이야기를 한자리할 것이니 들어 보시오. 나는 이 소나무 숲에서 가장 나이를 많이 먹은 소나무의 정령이오. 내가 일백 살이나 먹는 긴 세월 동안 온갖 풍상을 다 겪으며 살았다오. 오백 년 역사를 간직한 조선왕조의 패망을 뜬눈으로 지켜보았고, 섬나라 왜놈들이 쳐들어와 이 나라 백성을 도륙하는 천하의 망나니짓을 눈물을 삼키며 지켜보기도 했소. 어디 그뿐이요, 6.25 사변 때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소. 내가 사는 동안 세월이 아로새긴 야기를 더 듣고 싶거든, 내가 죽은 후에 나이테를 잘 살펴보시오. 그 나이테 속에 나의 지나온 과거사를 한 올 한 올 촘촘하게 새겨 두었으니 그때를 상기하면서 나를 기억해 주기 바라오. 그런데 오늘 내가 정작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라오.

이 학교는 지금으로부터 백여 년 전에 양조장으로 큰돈을 모은 건넛마을 이 진사가 세웠다오.
그때 함께 심었던 천여 그루의 소나무는 세월을 못 이겨 하나둘 죽어갔고 이제는 나를 위시한 늙은 소나무 몇 그루만 남았소.

이 학교의 졸업생 가운데 김상구라는 아이가 있었소. 늘 꾀죄죄한 옷가지를 걸치고 검정 고무신을 끌고 학교에 오는 가난한 집 아이였소. 그 아이의 할아버지 때는 살림이 끌끌해서 남부러울 게 없었는데, 지각없는 자손들이 투전으로 허랑방탕한 끝에 집안이 기울었던 게요. 그렇지만 그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는 뭔가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던 아이였다오.

점심을 싸 오지 못하는 그 아이는 친구들이 도시락을 먹을 동안 소나무에 기대앉아 책을 읽으며 배고픔을 참았다오. 그러던 그 아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했고 드디어 별을 단 높은 군인이 되어 학교를 찾아오지 않았겠소. 번쩍번쩍하는 별을 세 개씩이나 단 장군이 돼서 모교를 찾아왔다 그 말이요. 내가 그 장군을 보는 순간 그 아이 어렸을 적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겠소.

그 아이가 오학년 땐가 육학년 땐가 소나무 숲에서 보물찾기 놀이를 한 적이 있었소. 그때 내가 발밑에 숨겨놓은 보물 쪽지를 그 아이에게 슬쩍 내밀어서 공책을 타게 한 일이 있었소.

그랬던 아이가 장군이 돼서 떡하니 내 앞에 나타났으니 내가 더 놀라고 반가웠다오. 김상구 장군이 소나무 숲을 찾아왔을 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오.

"김상구 장군! 그대는 초등학교 때 늘 일등만 하더니 기어이 장군이 되었구나. 참으로 장하고 대견하다. 언젠가 학교 숲에서 보물찾기할 때 내가 찾아준 보물 쪽지로 상을 탔던 일을 기억하는가? 그때 이미 나는 자네가 큰 인물이 될 줄 알았었지. 김 장군! 자네가 모교를 방문할 것이라는 소문은 아이들이 조잘대는 입소문으로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처럼 소나무밭으로 나를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다네. 상구 자네가 별이 번쩍거리는 제복을 입고 나를 안아줄 때 나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네. 마치 내가 장군이라도 된 듯이 으스대고 싶었으니까 말일세. 아 참 김 장군! 자네 이 판서 댁 손자 이정승이 알지? 자네와 늘 일 이등을 다투던 아이 말일세. 자네도 알다시피 그 아이 할아버지가 조선조 법부대신을 지내지 않았던가.

그 정승이가 할아버지 대를 이어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네. 왕대밭에 왕대 난다는 말이 헛말이 아닌 것 같으이.

그리고 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름을 잊었지만,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긴 여학생이었지. 공부는 물론이고 특히 노래를 썩 잘했던 아이였지. 시간만 나면 솔밭에 와서 혼자 노래를 부르던 아이가 유명한 대학의 음대 교수가 되었다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보냈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놈은 성공하는데 농땡이 치는 녀석들은 인간 구실을 못하더라고."

"나무 의사 양반 잘 들어보시오. 그래서 내가 오늘 나를 찾아온 김 장군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오. 김 장군! 자네는 나라를 위하여 큰일을 할 사람이니 부디 자중자애하길 바라네.

이제 나도 늙고 병들었는데 운 좋게 용한 나무 의사를 만나서 병도 고쳤으니 천년 만 년 장수했으면 좋겠네. 이 좋은 세상에 오래오래 살아야지 않겠는가. 그러니 김 장군 자네도 부디 건강하시고 무운장구하기 바라네, 이렇게 말이요.

좌우간 나무 의사 양반 덕분에 병든 몸이 깨끗하게 나았으니 고맙소."

깜짝 깨어보니 한 낮의 꿈이었다.

이 소나무 숲을 거쳐 간 수 많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그들이 부디 어릴 때 꾸었던 무지개 하늘꿈이 늘 아름답게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누구에게나 어릴 적 꿈은 값지고 영원한 마음의 고향인 것이다.

최치원은 왜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었을까?

시인 · 역사칼럼니스트 신현배

최치원은 신라 말기의 대학자다. 12세로 당나라에 유학하여 6년 만에 과거를 보아 당당히 급제했다. 그 뒤 여러 벼슬을 거쳤는데, 황소의 난 때는 반란군 두목인 황소를 꾸짖는 글인 「토황소 격문」을 써서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다.

신라 헌강왕 11년(885년) 신라로 돌아온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배운 학식으로 정치를 잘 해 보려고 온힘을 쏟았다. 그러나 당시 신라는 매우 어지러웠다.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하고, 백성들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도둑질에 나섰다.

최치원은 자신의 뜻을 펼칠 수가 없자, 스스로 태수가 되어 지방으로 내려갔다. 그는 태인 · 함양 · 서산 등의 태수를 지냈다.

최치원이 함양 태수로 있을 때의 일이다.

경상도 함양에는 고을을 가로질러 흐르는 '위천'이란 강이 있었다. 이 강은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흘러넘쳐 홍수가 나는 것이었다. 논밭은 물론 마을이 물에 잠겨 버렸다. 함양에 부임한 최치원은 백성들이 홍수 피해를 보자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백성들이 해마다 이런 피해를 당하니…… 홍수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을까?'

최치원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며 궁리를 거듭했는데, 별안간 손으로 무릎을 쳤다.

'그래, 바로 그거야. 둑을 쌓아 강물을 돌리고, 둑 위에 나무를 심는 거야.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면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겠지?'

최치원은 날이 밝자마자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공사를 시작했다. 둑을 쌓아 강물을 돌리고, 둑 위에 나무를 심었다. 둑을 따라 소나무 · 느티나무 · 떡갈나무 · 밤나무 · 이팝나무 · 굴참나무 · 층층나무 · 팽나무 등 다양한 종의 나무를 심어 숲을 가꾸었다. 그러고는 숲을 '대관림'이라고 불렀다. 10리에 걸쳐 이어진 대관림은 상림과 하림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어느 날 최치원은 어머니를 모시고 상림으로 놀러갔다. 나무가 우거진 숲을 함께 거니는데, 어디선가 불쑥 뱀 한 마리가 나타났다.

"으악!"

어머니는 뱀을 보자 까무러칠 듯이 놀랐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버렸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자 최치원은 큰 소리로 외쳤다.

"앞으로는 이 숲에 뱀은 얼씬도 하지 말라!"

최치원은 소문난 효자였다. 그의 효심에 하늘이 감동했는지 그 뒤부터 상림에서는 뱀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하림은 거의 없어지고 상림만 남았다. 이 숲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림으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어 1962년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되었다. 이 숲에는 현재 100여 종에 이르는 2만여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

함양에 있는 상림처럼 마을 사람들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숲을 '마을 숲'이라고 한다. 일제 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1,335개의 마을 숲이 있고, 산림청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전국에 1,410개의 마을 숲이 있다고 한다.

마을 숲은 그 기능에 따라 수구막이, 방풍 · 방수림, 방조 · 어부림 등이 있다.

수구막이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물이 드나드는 곳인 '수구(水口)'가 열려 있으면 마을이 허하다고 하여 마을 입구에 만든 숲이다. 빠뜨리거나 모자라는 것을 돕는다는 뜻에서 '비보림'이라고도 한다. 더러운 물이 빠지는 수구문을 가리거나 불길한 기운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숲을 만든 것이다.

방풍 · 방수림은 거센 바람을 막거나 밀려오는 홍수를 막기 위해 만든 숲이다. 하천을 끼고 있는 곳에서는 하천 변에 나무를 심어 수해를 방지하고 농경지를 보호하는 것이다.

방조 · 어부림은 바닷가 마을에서 바닷바람을 막고, 물고기를 모여들게 하려고 가꾼 숲이다. 바닷가에 바람막이숲을 만들면 바닷바람과 해일 등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고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숲 그늘로 물고기 떼를 불러 모아 물고기들이 번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담양의 관방제림도 홍수 피해를 막으려고 만든 숲이라고 한다.

전라남도 담양의 관방제림은 담양읍을 휘감아 흐르는 담양천의 북쪽 언덕에 만든 숲이다. '관방제림'은 '관청에서 조성한 둑의 나무'라는 뜻이다. 이 숲을 만든 사람은 「춘향전」의 주인공인 이몽룡의 실제 모델로도 알려진 성이성이다. 그는 인조 26년(1648년) 담양부사로 부임했는데, 여름철이면 담양천이 범람하여 백성들이 고통 받는 것을 보고 담양천변에 둑을 쌓고 나무를 심었다. 성이성은 이 공사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 뒤 관방제림은 철종 5년(1854년) 담양부사 황종림이 3만 명을 불러 모아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했다. 이곳에 있는 굵은 나무는 300여 년 전에 성이성이 심은 것이고, 그보다 작은 나무는 100여 년 전에 황종림이 심은 것이라고 한다.

담양의 관방제림은 1991년 천연기념물 제366호로 지정되었는데, 천연기념물 지정 구역 안에는 177그루의 나무들이 있다고 한다.

신규회원사 (2021.10-12)

지회	회사명	성명	연락처	주소
광주전남 서부	주식회사 동양에코	최윤수	062-261-5737 010-3603-1770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67번길 36, 1층
경기	소백산농원	우성호	054-634-4000 010-3514-0088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대룡산로 38-10
경남중부	봉봉조경	정재봉	010-2864-539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서곡길 84
충북	㈜조아조경	추정엽	043-259-8945 010-9637-3577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토성로 75, 202호 (정하동)
강원	㈜영일조경	김영근	033-647-0613 010-7657-6940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자조왈길 41, 1층
경기		김세라	010-9287-088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로 34, 호반써밋판교밸리 212동 702호
경기	한국식물특허, 조경마루	황수영	010-9377-3058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서촌로 38-9
강원	도원조경	허영호	010-5206-9365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다래골길 7-28

회원사변경 (2021.10-12)

업체명	대표자	변경종류	변경후
(주)오우	안낙원	상호변경	㈜오우조경→㈜오우
㈜정동건설	윤희경	주소변경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층 270호
벽산조경	승장호	주소,일반전화 변경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부영아파트 202동 508호, 전화 : 062-333-4613
우리들농원	이상희	주소변경, 일반전화, 팩스 없음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93 (거제센트럴자이 102동 2001호)
그린농원	노미영	주소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로 94, 양산신도시아파트 청어람 208동 506호
영산조경㈜	이규원	대표변경	이영복→이규원

회원사변경 (2021.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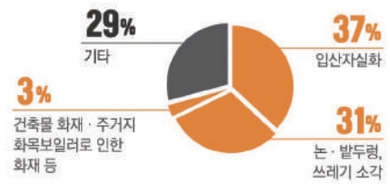
업체명	대표자	변경종류	변경후
㈜청솔조경개발	박성남	주소변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44번길 62-16, 3층
한밭조경	박종업	주소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로 38번지 4층, 401호
동부묘목농원㈜	송시습	주소변경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159-14. 중흥S-클래스 906동 805호
서득종합조경	전길수	주소변경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맹서동 62-6
나우건설조경㈜	이성각	주소, 일반전화, 핸드폰 변경	일반전화 : 041-855-5565, 핸드폰 : 010-4715-7002 충남 공주시 신관로 69-11
예담조경㈜	심인보	주소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40-1
금호농원	차춘열	주소변경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백강로 614. 201-3호
지산조경건설	홍지상	주소변경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원삼2길 12.
발해조경건설㈜	여철민	주소변경	전라북도 군산시 영명길5. 2층 (구암동333-2)
진우분재	박진우	주소변경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삼덕1길 17
㈜송학조경	공종표	주소,일반전화, 팩스 변경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15길 10. 전화 : 053-857-3889, 팩스 : 053-852-3880
주식회사 강산조경	김창수	주소변경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황굴로 113
㈜월성조경공사	이상걸	주소변경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검단장골길 181-17
미림조경	황주일	주소, 일반전화 변경, 팩스삭제	일반전화 : 055-761-3630,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강누방목로 401번길 45-58 "베리굿팜"
㈜청운조경	서범석	주소변경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1길 18-1 4층
㈜라움그린	여봉례	주소변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35. 삼화빌딩 202호
정원팩토리㈜	황호준	주소변경	경기도 하남시 초이로 99번길 131-6 (초이동)

알아두세요!

산불 주요 발생 원인

71%

입산자 실화 및
논 · 밭두렁,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입니다



소각 **31%**

꼭! 지켜주세요!

안전 소각 행동요령 2가지

1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
일체의 소각행위 금지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 부터 100m이내)

2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은
반드시 시 · 군 산림부서 허가 받아 실시
(마을단위 공동소각)

창조적 친환경 조성, 한국조경수협회 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는 창조적 친환경 조성에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경영을 현대화하고, 정보를 함께 공유하여 회원사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인류사회에 공헌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하면 이런점이 좋습니다.

1. 임업정책자금(조경수생산자금)을 해당 산림조합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추천해 드립니다.
2. 조경수생산 및 녹화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구매하여 공급해 드립니다.
3. 산림소득사업공모(조경수컨테이너 재배)시 컨설팅 및 공모사업 신청서를 대행 작성해 드립니다.
4. 한해 대비 조경수생산농장 급수원 개발을 위하여 관정시설사업 국고지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5. 조경수 생산계획, 생산기술, 판매에 대한 최신정보를 협회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6. 조달청가격, 공사품셈, 회원명단이 게재된 조경수목가격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7. 협회 홈페이지「조경수 매물정보」코너 (조경수 사진매물, 급매물 등)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최신 조경수 생산기술 및 관련정보의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국내선진지 시찰, 기술세미나 등 협회주관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조건 : 조경수를 0.5ha이상 재배하는 자
- 문 의 처 : TEL 042-822-5793~4 FAX 042-822-5797

조경수 직거래 안내

-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www.klta.or.kr)에서는 조경수 매물, 매입의 직거래를 할수있습니다.
- 이용료 납부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내 시간에 구애없이 매물을 올릴 수 있고, 사진이 공개되어 바로 거래가 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불가한 분은 협회에서 도와드립니다.)

추천매물 농장	조경수 사진매물 급매물, 묘목매물	조경수 매입
이용료 연 30만원 (홈페이지제작시 별도비용발생)	연 7만원 6개월 5만원	무료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
KOREA LANDSCAPING TREE ASSOCIATION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84(봉명동 447-6) 레자미(Ⅲ) 오피스텔 203호
TEL : 042-822-5793~4 FAX : 042-822-5797
E-mail : klta@klta.or.kr http://www.klta.or.kr

TAEHEUNG F&G

수목·조경 비료에 관한 모든 것

2021

나무를 생각하는 유일한 기업

수목조경 전문회사 태흥 F&G

ALL IN ONE

코코피트+질석+규조토

조경수 컨테이너 전용상토

01 일반 경량상토와 대비하여 밀도가 높아, 추가적인 마사토 혼합이 불필요하며 수목의 안정적인 지지가 가능합니다.
02 거칠고 굵은 입자의 원료를 사용하여 통기성과 물빠짐이 좋습니다.
03 습윤제를 첨가하여, 적정수분 유지가 용이합니다.
04 보비력(CEC)이 높고 pH가 안정화되어 있어, 영양성분의 과부족에도 완충능력을 가집니다.

조경수 컨테이너 전용상토 50L

*침엽수용, 활엽수용 전용상토도 있습니다.

조경용 고형비료 20kg

- 비료효과 기간이 일반 복합비료의 3~4배
- 3년이상 "성목 관리용 비료"
- 조개탄 모양으로 시비가 편리
- 수목의 푸르름, 꽃빛깔을 신선하게 유지
- 황산칼리 함유로 하고현상 및 염도피해 방지

그린애 조경용 유기질 20kg

- 영양분, 유기물 함량이 높아, 퇴비 사용량의 1/3만 사용
- 그래뉼(환) 형태로 사용이 편리하고, 시비인건비 절감
- 식물성 유박을 사용한 친환경 유기질 비료
- 토양의 통기성, 배수성이 증대
- 식물의 양분 흡수력을 증대

검색창에 나무비료 를 치시면 태흥F&G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구매는 트리맘 에서 가능합니다.

(주)태흥F&G
TAEHEUNG Fertilizer & Global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Venture for Tomorrow 벤처인증기업

본사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29 그린프라자 303호
공장 경북 의성군 금성면 공룡로 281 태흥에프엔지
상담문의 032-715-5581